

부정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양 하 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언어학앞에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부정어의 의미와 관계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말에서 부정의 의미와 그것이 문장안에서 미치는 범위 그리고 이중 부정에 대한 문제, 기타 부정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말 부정어의 의미와 그것이 문장안에서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밝히려 한다.

부정어가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 옳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진리로 되는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허위로 되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정어가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는 오직 진리와 허위의 관계속에서만 옳바로 설명할수 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진리인가 아니면 허위인가 하는것은 실천에서 검증된다.

례: 이것은 벽이 아니다.(벽을 가리키면서)

우의 부정문은 《이것은 벽이다.》라는 긍정문을 형용사 《아니다》로 부정한것이다. 실지 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벽이다.》라고 하면 현실과 맞으므로 진리로 된다.

그런데 진리를 부정하였으므로 우의 부정문은 허위로 된다. 즉 진리를 허위로 바꾸었다. 말하자면 우의 부정문은 진리를 허위로 바꾸는 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례: 이것은 문이 아니다.(벽을 가리키면서)

우의 부정문은 《이것은 문이다.》라는 긍정문을 형용사 《아니다》로 부정한것이다.

실지 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문이다.》라고 긍정한다면 그말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문법적으로는 비록 긍정문이라고 하여도 의미에 있어서는 허위로 된다.

그런데 그러한 허위를 부정하였으므로 우의 부정문은 진리로 된다. 즉 허위를 진리로 바꾸었다.

례: 비가 오지 않는다.(비가 한참 쏟아지는것을 보면서)

우의 실례는 긍정문 《비가 온다.》를 부정적으로 쓰이는 동사 《않다》로 부정한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으며 진리를 허위로 바꾼것이다.

례: 비가 오지 않는다.(맑게 개인 날에)

우의 실례는 긍정문 《비가 온다.》를 부정적으로 쓰이는 동사 《않다》로 부정한것인데 현

실과 맞으므로 허위를 진리로 표현한것이다.

형용사 《아니다》와 부정적으로 쓰이는 동사 《않다》로 표현된 두가지의 실례들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부정은 진리를 허위로, 허위를 진리로 바꾸어주는 언어적수법이다.

여기서 진리인가 허위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부정하였다고 하여 부정된것이 다 진리이거나 허위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과 맞으면 진리가 되고 맞지 않으면 허위가 된다.

긍정과 부정은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그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진리인가 허위인가 하는것은 현실을 척도로 하여야만 정확히 갈라질 수 있다.

부정어의 부정적의미가 해당 문장에서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부정어의 부정적의미가 문장에 미치는 범위 즉 문장전체에 걸리는가 아니면 문장의 일부에 걸리는가 하는것은 도움토 《은/는》에 의하여 갈라볼 수 있다.

지정분리의 의미를 가진 도움토 《은/는》에 의하여 부정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갈라볼 수 있다.

도움토 《은/는》을 《명수가 면옥에 들어갔을 때》의 뒤에 붙이면 부정어 《아니다》의 의미가 《명수가 면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도움토 《은/는》이 문장속에서 자기가 붙은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그것이 속한 부류에서 떼어내는 문법적역할을 하기때문이다.

례: 명수가 면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명희가 랭면을 먹은것이 아니다.

우의 실례는 면옥에 들어간 명수의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까지만에도 명희가 국수를 먹지 않은것을 표현하고있다.

즉 《아니다》라는 단어가 명수의 행동에는 걸리지 않고 다만 명희의 행동에만 관련되면서 명희가 국수를 먹지 않았다는것을 강조하는것과 함께 《먹었다》는 의미를 부정하고있다.

이 문장전체가 부정되는것으로 만들자면 문장의 마감에 도움토 《은/는》을 붙이면 된다.

례: 명수가 면옥에 들어갔을 때 명희가 랭면을 먹은것은 아니다.

우의 실례는 명수가 면옥에 들어간 당시에 명희가 국수를 먹고있지 않았다는것을 표현한것으로서 이미전에 먹었을 수 있고 그후에 먹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즉 《아니다》라는 단어가 문장전체에 걸리면서 국수를 먹은것이 명수가 면옥에 들어간 당시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는것과 함께 명수의 행동과 《먹었다》는 의미를 부정하고있다.

이처럼 해당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문법적으로 토 《은/는》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 언어생활에서 환경에 맞게 이해할 수도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이중부정과 부정적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수단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이중부정은 한번 부정한것을 다시 부정하여 긍정으로 만드는 수법이다.

이중부정은 《아닌게 아니라》는 성구적표현으로 이루어진것인데 부정을 다시 부정하였으므로 리치로 보면 《옳다》, 《그렇다》와 같은 긍정을 의미한다. 론리적으로는 《아닌게 아니라》가 《옳다》나 《그렇다》를 의미하지만 표현력에 있어서는 단순히 《옳다》, 《그렇다》보다

긍정적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하여 이 중부정은 《정말 옳다》나 《참말 그렇다》와 같은 의미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중부정의 표현력이 더 강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긍정표현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제기하고 부정의 측면을 다시 부정하여 제거함으로써 긍정의 측면만 성립되도록만 들어주기때문이다.

례: ① 대학생들은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② 대학생들은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의 첫째 문장은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긍정적의미를 전면에서 세움으로써 그것이 대학생들에게서 의무로 된다는 무조건적인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지 않다.》를 부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로 나가는것이 필연적이고 응당한것이라는 의미,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보다 더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이중부정은 논리적으로는 긍정을 표시하지만 의미폭이 더 넓은것으로 하여 표현적색채가 더 짙다고 할수 있다.

례: 그가 원산에 가지 않은것은 아니다.

우의 이중부정문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가 원산에 갔다.》는 긍정을 표현한것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가 원산에 갔다.》와 《그가 원산에 가긴 갔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더 있는것이다.

우리 말에서 부정의 표현수단에는 부정어와 부정의 형태부가 있다.

부정어에는 부정부사 《아니(안)》와 《못》이 있고 형용사 《아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형용사 《없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동사 《않다》 그리고 부정의 보조동사 《말다》가 있다.

례: 아니 댜 굴뚝에서 연기날가.

그는 숙제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동물이 아니다.

꽃이 피지 않다.

밥을 먹지 않다.

방학때 놀러가지 말자.

부정의 형태부에는 《불(부), 비, 미》가 있다.

례: 불합격, 부도체, 비합법, 미완성, 미도착

부정의 표현수단에 대한 이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형용사 《없다》를 부정의 표현수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없다》는 형용사로서 사물현상이 없음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의미만 있고 부정의 의미는 없다.

물론 동사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이고 《있다》의 부정은 《있지 않다》이며 그 의미는 《없다》이다.

그러나 이 형용사가 어떤 다른 명사, 실례로 명사 《밖》과 여격로 《에》가 결합한 문장에 참가하여 형성한 《~할수 밖에 없다》와 같은 문장만 보아도 그 어떤 부정의 의미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없다》가 부정의 의미는 없고 다만 없다는것을 긍정하는 긍정어이기때문이다. 즉 단어 《없다》에 의하여 《~할수 밖에》가 결코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밖에도 부정어의 부정적의미와 관련하여 아직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다.

우리는 부정어와 그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언어학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